# "가을 초대장 내게 물어봐"

## 초대 못받은 KIA·현대·롯데, 상위팀에 연거푸 고춧가루

### 3~5위 3.5게임차… 막판 피말리는 순위 다툼

"가을잔치 초대장은 우리에게 물어봐!"

2007 프로야구가 시즌 막바지인 우천리그로 접어든 가운데 KIA, 현대, 롯데 등 하위팀들의 거센 반란이 포스트 시즌 진출 판도를 뒤흔들고 있다.

현재 6~8위에 머물고 있는 롯데, 현대, KIA는 '가을 잔치'를 위해 치열한 순위 싸움을 하고 있는 2~5위에 랭크된 두산, 삼성, 한화, LG에 잇따라 쓴맛을 안기고 있다.

비록 포스트시즌 경쟁에서 밀려났지만 팀의 자존심과 응원해주는 팬들을 위해 마지막까지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내년 시즌의 대반격을 위해서라도 남은 경기를 승리의 찬가로 장식하겠다는 각오다.

4위내에 들어야만 포스트 시즌 진출이 가능한 상황에서 4일 현재 2위 두산과 3위 삼성은 1.5게임차, 삼성과 4위 한화는 0.5게임차, 한화와 5위 LG는 3게임차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들 상위팀들은 남은 우천리그에서 하위팀들에 덜미를 잡힐 경우 치명타를 입을 수도 있다.

2002년 이후 5년 만에 포스트시즌 진출을 노리는 LG는 지난 4일 수원구장에서 열린 현대 유니콘스와 경기에서 당한 패배(7-8)로 4위 한화와 3게임차로 벌어졌다.

현대는 이택근, 정성훈, 송지만, 클리프 브룸바 등을 중심으로 최근 5경기 평균 타율이 0.274로 만만치 않은 방망이 실력을 뽐내고 있다.

뒷심 부족으로 4강 문턱에서 좌절한 롯데도 지난 2일 2위 두산을 맞아 4-3 낙승을 거뒀다.

지난 8월26일 한화전부터 5연패 부진에 빠졌던 롯데가 에이스 손민한을 앞세워 플레이오프 직행을 위해 갈길이 바쁜 두산에 한방을 먹인 꼴이다.

최하위 KIA가 뿌려대는 고춧가루도 매섭다 못해 무섭다.

KIA는 지난 8월25~31일 삼성, 두산, 현대를 잇따라 꺾으면서 3연승을 올리는 등 최근 상위팀들에겐 가장 무서운 팀이 됐다.

KIA는 에이스 윤석민을 비롯해 베테랑 이대진, 외국인 투수 제이슨 스코비 등으로 꾸려진 선발진이 안정감을 찾고 김종국, 이용규, 이현곤, 장성호, 최희섭 등이 버티는 타선의 응집력은 8개 구단중 최고로 꼽힌다.

막판까지 전력질주를 하고 있는 롯데, 현대, KIA가 상위팀들을 계속 잡으면서 포스트시즌 판도에 어떤 영향을 줄 지 관심이 쏠린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감히 어딜…** 5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미 프로야구 LA에인절스와 오클랜드 애슬래틱스의 경기에서 오클랜드의 마크 엘리스(아래)가 2루에서 포스아웃을 당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병현 9승 도전

## 8일 필라델피아전 선발등판

김병현(28·플로리다 말린스)이 플로리다 복귀 후 3연승과 함께 시즌 9승 등 두 마리 토끼 사냥에 나선다.

플로리다는 5일(한국시간) 김병현(8승6패·평균자책점 5.54)이 8일 오전 8시5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시티즌스뱅크파크에서 열리는 필라델피아 필리스와 원정경기에 선발 등판한다고 예고했다.

김병현으로선 지난달 26일 다시 플로리다 유니폼을 입은 뒤 구원과 선발로 두 경기 연속 승리를 거둔 만큼 3연승에 욕심이 나지 않을 수 없다. 또 1승만 보태면 2003년 기록했던 자신의 한 시즌 최다승(9승)과 타이를 이룬다.

8일 상대할 필라델피아는 지난 2일 김병현이 플로리다 복귀 후 처음 선발로 출격해 승수를 올렸던 팀이다. 김병현은 당시 5이닝 동안 홈런 2개 등 10안타로 4실점했지만 화끈하게 폭발한 타선의 도움을 받아 승리를 챙겼다.

선발 맞대결 상대는 리턴매치를 벌일 우완 영건 J.D 더빈(25). 2004년 메이저리그에 데뷔한 더빈은 지난해까지 1승도 없었지만 올해 6승(4패)을 수확했다. 김병현과 선발 대결을 펼쳤던 2일 경기 때는 아웃카운트를 한 개도 잡지 못하고 5안타로 7실점하는 부진을 겪어 평균자책점이 6.27로 치솟았다. 더빈으로선 김병현을 상대로 한 설욕전인 셈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매서운 발차기** 5일 오전 경기도 성남 국군체육부대에서 열린 제16회 국방부장관기 태권도대회 밴텀급 경기에서 용인대 윤철기(오른쪽)가 충남대 최원길에게 왼발차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스포츠중계

6일(목)

▲한국여자 프로골프 대회 KB국민은행 스타투어 4차 1R(13 : 00·Xports·KBSN)

▲일본 프로야구〈주니치-요미우리〉(17 : 50·SBS 스포츠)

▲프로야구〈SK-LG〉(18 : 00·KBSN SPORTS), 〈삼성-현대〉(18 : 00·MBC ESPN)

7일(금)

▲US OPEN 테니스 남녀단식 8강(00 : 30·Xports)

▲PGA BMW 챔피언십 1R(03 : 00·SBS 스포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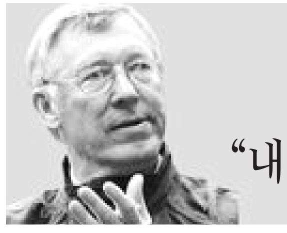
# 올 잉글랜드 이적시장 9,470억 풀렸다

## 맨유·리버풀·토트넘順 투자

올해 여름 유럽 축구 이적시장에서 잉글랜드 프로축구 구단들이 쏟아부은 이적료 총액이 무려 5억파운드(9천470억원)를 넘어섰다.

5일(한국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회계법인 딜로이트 앤드 투쉬가 프리미어리그 20개 구단을 비롯해 잉글랜드 1~4부 리그 팀들이 선수들을 영입하면서 지불한 이적료를 모두 더해본 결과 작년(3억파운드)보다 60% 넘게 증가한 5억파운드를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여름 많은 돈을 쓴 구단은 '제2의 호날두' 나니와 안데르손 등을 영입하면서 5천100만파운드(965억원)를 투자한 리그 챔피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와 스페인 국가대표 페르난도 토레스를 사들인 리버풀(5천만파운드), 공격수 대런 벤트를 보강한 토트넘(4천만파운드)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진표기자 lucky@



### 맨유 퍼거슨 감독 "내 후계자는 케이로스"

"케이로스 코치가 내 자리를 물려받을 강력한 후보다. 하지만 내가 언제 은퇴할 진 아직 모른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의 지휘봉을 21년째 잡고 있는 알렉스 퍼거슨(66) 감독이 '후계 구도'를 언급해 관심을 끌고 있다.

5일(한국시간) 스포츠 전문사이트 '스포츠티커'에 따르면 퍼거슨 감독은 맨유의 다음 사령탑으로 카를로스 케이로스(54) 수석코치가 유력한 후보라고 밝혔다.

포르투갈 국적으로 모잠비크에서 태어난 케이로스 코치는 1989년~1991년 포르투갈 청소년대표팀을 지도하면서 루이스 피구 등 '황금세대' 멤버들을 길러냈다.

### 러시아 히딩크 감독 "잉글랜드는 겁쟁이"

거스 히딩크 러시아 축구대표팀 감독이 '종가' 잉글랜드를 자극했다.

5일(이하 한국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 미러'에 따르면 히딩크 감독은 2008 유럽축구선수권대회(이하 유로2008) 예선에서 맞붙을 잉글랜드를 '너무 겁이 많고 기대 이하'라고 깎아 내렸다.

유로2008 예선리그 E조에 속한 러시아는 9일 모스크바에서 마케도니아와 홈 경기를 치른 뒤 13일 런던 뉴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잉글랜드와 원정경기를 갖는다.

히딩크 감독은 "그들은 지난 두 차례 월드컵에서 기대 이하의 성적을 거뒀다"면서 "잉글랜드는 최근 열정과 욕망, 공격 의지를 잃었다"고 말했다.